

시립국제수영장 지상권 설정 잘못됐다

광주시가 남부대학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중인 시립국제수영장의 지상권 설정 범위가 실제 건설면적에 못미쳐 법적권리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보조사업 등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의 지상권 설정과 주차장 사용료 지급,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등이 부적절하게 처리돼 시정·주의·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시는 남부대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지난 2012년 6월29일 U대회 경기장 시설물에

광주시 감사위 지방보조 특정감사 결과 실제 건설면적, 지상권 설정 범위 넘어서

필요한 건축부지 1만4355㎡(수영장 1만㎡, 주차장 4355㎡)와 진입도로 2080㎡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 등기를 완료하고 2015년 5월8일 수영장 건축물을 사용승인했다.

그러나 실제 광주시가 건설한 수영장시설 면적은 수영장 1만999㎡, 주차장 3만8000㎡ 등 5만㎡에 달해 지상권 설정면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측이 지상권 설정

범위를 초과해 수영장과 주차장 등이 건설된 점을 들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는 향후 법적권리 분쟁을 막기 위해 수영장 건물과 최소한의 주차장 면적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토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광주시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3200만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

다고 판단했다.

대학측은 주차장 사용자가 대부분 수영장 이용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486편 주차장과 주차관리시스템을 광주시가 설치했고 유지보수 비용도 수영장 측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감사위 특정감사에서는 시립유내버시아드체육관 민간위탁 정산과 템플스테이 시설건립 보조사업 추진, 2016 세계월드컵스타필 위탁업,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산 등도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은홍 기자

“폭행당했다” 20대 여성 데이트폭력 호소

광주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지난 7일 접수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3월께 광주 모 백화점에서 남자친구로부터 보온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맞고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께 자신의 부모님과 동행한 부산여행 중에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A 씨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폭행사실과 명이 든 자신의 신체사진을 한 SNS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장소 CCTV 영상 확보에 나서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울릉 계곡서 나물 캐던 70대 할머니 추락사

경북 울릉군의 한 계곡에서 나물을 캐던 70대 할머니가 추락해 숨졌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울릉군 서면 남양리 계곡에서 A(70·여)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7일 나물을 캐러 간다며 집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나물을 캐던 A씨가 40여m 계곡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남 피부과서 시술 뒤 집단 패혈증 발생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동반한 시술 이후 패혈증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합동 감사를 진행한 뒤 병원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피부과 의원과 병원 관계자를 내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해당 피부과에서 피부 리프팅 레이저·울세라·홍조 치료 등을 시술 받은 환자 20명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6개 병원 응급실로 분산 이송돼 별도의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같은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뒤 시술을 받았던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사이 여성 19명과 남성 1명이다. 이들은 패혈증 증세를 보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합동 감사를 진행하면서 프로포폴 변질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감식반은 질병관리본부 5명, 서울시 4명, 강남보건소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2명, 경찰 21명 등 모두 34명 규모로 꾸려졌다.

원룸서 20대 남성·16개월 아들 숨진 채 발견

경북 구미시 봉곡동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과 16개월 된 남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45분께 구미 봉곡동 원룸에서 서모(28)씨와 16개월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제임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부동산중개사의 신고에 따라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부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발견 당시 서씨와 아기는 나란히 누운 채 발견됐고,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서씨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아위었고 집 내부에 음식을 조리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 서씨가 병사한 뒤 아기가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씨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수개월 전 헤어진 뒤 아들과 함께 생활해왔고,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국서에퍼포먼스협회 생선 김동욱과 새암 김지영 선생이 어머니날을 기념해 효도 '효'자와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광목천 가로 3m, 세로 7m에 쓰는 서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집단폭행 피해자 변호인

“살인미수 혐의 적용” 촉구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8일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했다.

집단폭행 피해자 A(33)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광주 관산경찰서 앞에서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들은 A 씨가 제압당한 뒤 수 차례에 걸쳐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너 오늘 죽어야 한다'며 현장에 있던 돌과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예견했으며 적극적인 살인의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이라며 "살인 미수로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도 살인죄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고 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 씨는 양쪽 눈 모두 실명될 위기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형법 제 26조와 같은 법 254조를 적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 현장에 현수막을 걸고 이메일 등을 통해 사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A(33) 씨 일행(남성 3명·여성 2명)과 B(34) 씨 일행(남성 7명·여성 3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광주 관산구 한 술집 앞 공원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양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택 기자

“집행부 횡령·배임 의혹, 보훈처 감사 의뢰”

5·18구속부상자회정상화위

5·18구속부상자회정상화위원회(정상화위)는 8일 "구속부상자회 집행부가 12년동안 각종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보훈처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화위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구속부상자회 집행부는 일부회원을 동원해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입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이 회장으로 출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후보등록금으로 1000만원을 내도록 했으며 선거가 끝난 뒤 받아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학금 편취 의혹 등 각종 불법, 비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감찰 고발과 함께 국가보훈처에 감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29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 불신임안 이 가결됐지만 현 집행부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무효화시켰다"며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집행부는 사퇴하고 횡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화위가 주장하는 횡령, 배임 등은 없었다"며 "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했으며 5·18 38주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단합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최남규 기자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급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